

한학기한권읽기

꿈을 파는 달빛제과점

작성 이진미 선생님(계산중학교 교사)

오늘의 청소년 문학 35

김미승 장편소설



주제어 #역사소설 #일제강점기 #제빵 #꿈 #성장소설

분류 문학 > 한국문학 > 청소년소설

※이 지도안은 다른출판사 블로그(https://blog.naver.com/darun_pub)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차시	한 학기 한 권 읽기 - 《꿈을 파는 달빛제과점》
읽기 전 활동: 책의 소재로 워밍업하기	
학번:	이름:

1. '소울 푸드(soul food)'라는 말을 들어 보았지요? 소울 푸드는 본래 노예무역을 통해 미국 남부로 끌려왔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음식 문화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미국 흑인들의 문화에 '소울(soul)'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유행하면서 생긴 말이지요. 그렇다면 당시 흑인 노예들의 소울 푸드는 무엇이였을까요?

교사 Tip 1 흔히 알고 있는 미국 음식 중에서 자유롭게 상상해 보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아래 참고 자료를 함께 읽어 주세요.

2. 다음 자료를 읽고 'OO'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 보세요.

노예제도가 존재하던 시절, 미국 남부의 농장에서 혹독한 노동을 해야 했던 노예들이 1년 중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날은 얼마 없었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 날을 아주 신나고 특별한 날이라는 뜻으로 '빅 타임(Big Time)'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이들에게 주어진 고기는 백인 주인들이 먹지 않는 특수 부위인 경우가 많았다. 노예들은 닭 날개, 목, 닭발 같은 부위에 향신료를 듬뿍 바르고 튀김옷을 입힌 뒤 끓는 기름에 통째로 튀겼다. 이들에게 'OO'이 소울 푸드인 것은 '고통의 기억을 담은 영혼의 음식'이기 때문이다.

- <요리인류> 이육정 PD, 매거진 <F> 발췌

교사 Tip 2 정답은 '치킨'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프라이드치킨의 유래가 노예로 끌려온 이들의 애환이 담긴 음식이었다는 것을 알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게 해 주세요. 또 다른 노예들의 소울 푸드였던 바비큐의 사례도 들려주세요. 흑인 노예들이 집 안에 주방이 없어서 밖에서 요리해 먹던 방식이 지금까지 전해지는 것이지요. 물론 백인들은 집 안에 주방이 있으니 집 안에서 요리해서 먹었다고 해요.

3. 우리나라에서는 '소울 푸드'라는 말이 '추억이 담긴 음식', 또는 '마음을 움직이는 음식'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소울 푸드에 대한 생각을 나누기로 해요.

(1) '나의 소울 푸드'라는 말을 듣고 곧바로 떠오르는 음식이 있나요?



교사 Tip 3 소울 푸드가 없다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쓰도록 해 주세요.

(2) 그 음식을 처음 맛보았을 때를 기억하나요?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먹었나요? 그때 음식의 맛은 어땠고, 기분은 어땠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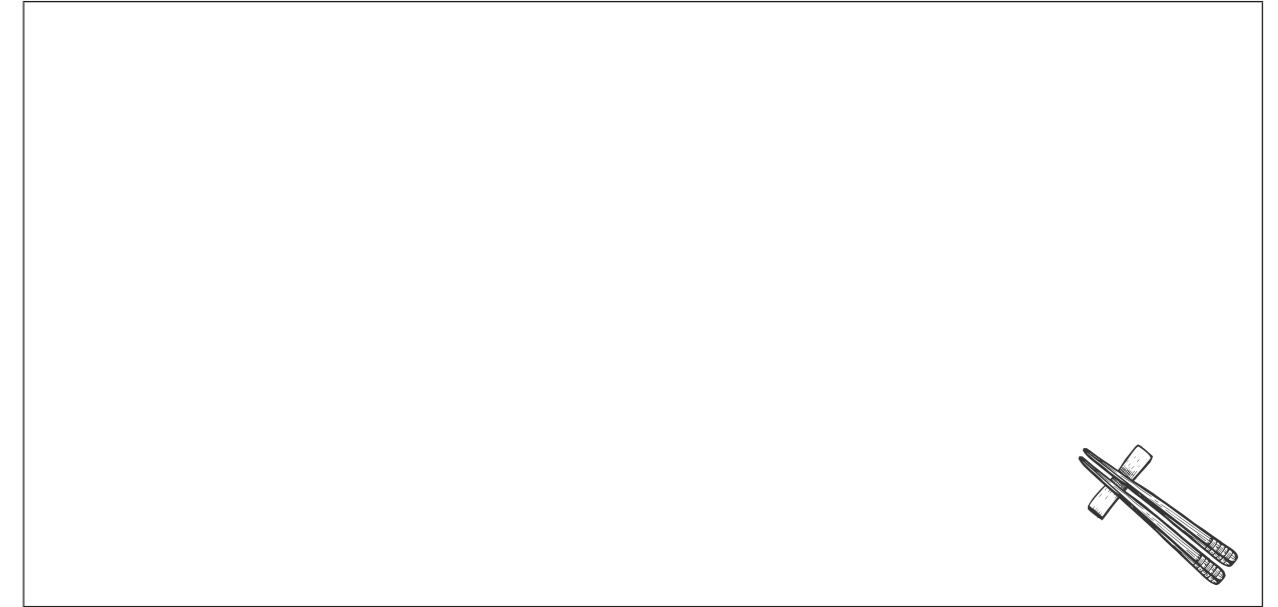
교사 Tip 4 그때의 상황을 떠올리며 최대한 생생하게 묘사하도록 해 주세요. 누가 만든 음식이었는지, 식당에서 먹었다면 어디에 있는 어떤 식당이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먹었는지, 음식의 모양과 색깔과 냄새는 어땠는지, 처음으로 한 입을 먹었을 때 느낌이 어땠는지 등등.

(3) 그 음식이 가장 먹고 싶고, 생각나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4) 여러분은 누구에게 그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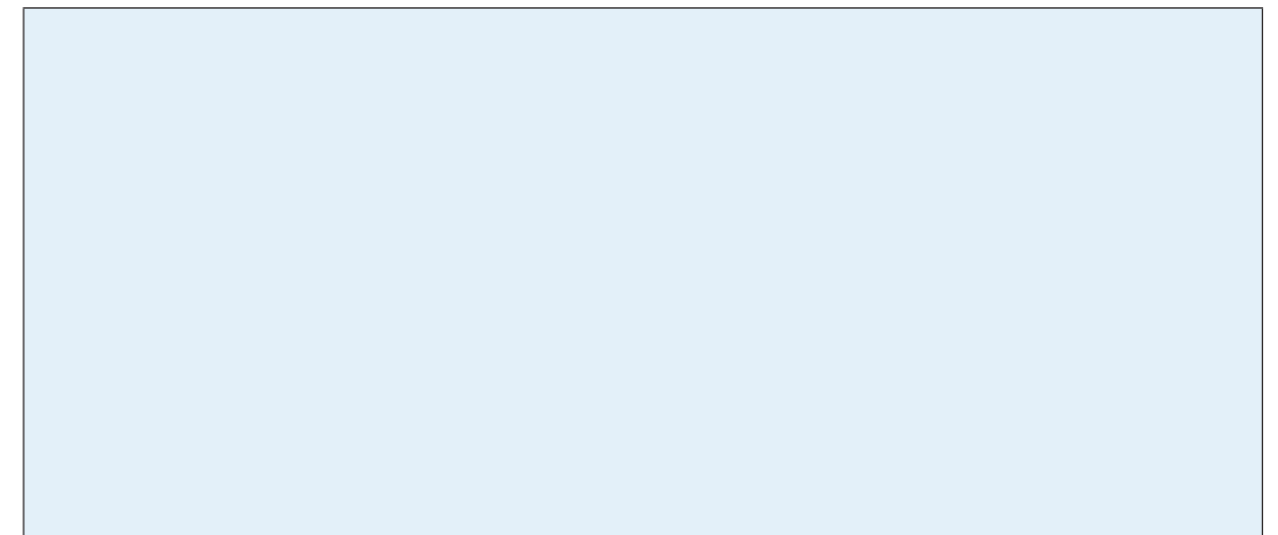
교사 Tip 5 내가 어떤 음식이든 최고의 맛으로 요리할 수 있는 '만능 요리사'라고 가정해서 쓰도록 합니다.

(5) 그 사람에게 대접할 상처임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교사 Tip 6 소중한 사람에게 대접한다는 생각으로 정성껏 그리도록 합니다. 음식을 주로 그리되 주변을 꽃이나 다른 사물로 꾸며도 좋습니다.

4. 다음 시간부터 네 시간에 걸쳐 함께 책을 읽을 예정입니다. 독서 속도가 느린 친구들은 수업 시간 전에 조금씩 미리 읽어 오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독서 시간을 만들기 위해 우리 학급의 '책 읽기 규칙'을 함께 정해봅시다.



교사 Tip 7 책 읽기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2-3가지 정도의 규칙을 공유하면 좋습니다. 책 읽기 수업을 하는 취지를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규칙은 학급별로 다르더라도 교사가 일괄적으로 정해 주기보다는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스스로 정한 규칙은 더 잘 지킬 거예요.

규칙의 예 읽다가 잠이 오면 스스로 제자리에서 일어나 책을 읽고 잠이 깨면 다시 스스로 자리에 앉는다.

2차시	한 학기 한 권 읽기 - 《꿈을 파는 달빛제과점》
읽기 활동: 오늘 읽은 내용 정리하기	
학번:	이름:

책 깊이 읽기 Tip 독서일지를 옆에 두고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어휘나 궁금한 점이 생기면 바로 기록해 보세요.

읽은 날짜	년 월 일	읽은 부분	쪽 ~ 쪽
어휘 학습 (뜻을 모르는 단어를 쓰고 의미를 찾아 기록하기)			
나의 질문 (읽으면서 궁금해진 것 또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것)			
기억에 남는 장면과 그 이유			
새로 등장한 인물 소개			

3차시	한 학기 한 권 읽기 - 《꿈을 파는 달빛제과점》
읽기 활동: 오늘 읽은 내용 정리하기	
학번:	이름:

책 깊이 읽기 Tip 독서일지를 옆에 두고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어휘나 궁금한 점이 생기면 바로 기록해 보세요.

읽은 날짜	년 월 일	읽은 부분	쪽 ~ 쪽
어휘 학습 (뜻을 모르는 단어를 쓰고 의미를 찾아 기록하기)			
나의 질문 (읽으면서 궁금해진 것 또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것)			
기억에 남는 장면과 그 이유			
새로 등장한 인물 소개			

4차시	한 학기 한 권 읽기 - 《꿈을 파는 달빛제과점》
읽기 활동: 오늘 읽은 내용 정리하기	
학번:	이름:

책 깊이 읽기 Tip 독서일지를 옆에 두고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어휘나 궁금한 점이 생기면 바로 기록해 보세요.

읽은 날짜	년 월 일	읽은 부분	쪽 ~ 쪽
어휘 학습 (뜻을 모르는 단어를 쓰고 의미를 찾아 기록하기)			
나의 질문 (읽으면서 궁금해진 것 또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것)			
기억에 남는 장면과 그 이유			
새로 등장한 인물 소개			

5차시	한 학기 한 권 읽기 - 《꿈을 파는 달빛제과점》
읽기 활동: 오늘 읽은 내용 정리하기	
학번:	이름:

책 깊이 읽기 Tip 독서일지를 옆에 두고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어휘나 궁금한 점이 생기면 바로 기록해 보세요.

읽은 날짜	년 월 일	읽은 부분	쪽 ~ 쪽
어휘 학습 (뜻을 모르는 단어를 쓰고 의미를 찾아 기록하기)			
나의 질문 (읽으면서 궁금해진 것 또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것)			
기억에 남는 장면과 그 이유			
새로 등장한 인물 소개			

6차시	한 학기 한 권 읽기 - 《꿈을 파는 달빛제과점》
읽기 후 활동: 등장인물의 특징 정리하기	
학번:	이름:

1.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해 알게 된 내용을 생각나는 대로 정리해 봅시다.

등장인물	성격 및 특징
단이 <small>(캐릭터 상상해서 그리기)</smal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인 여자아이. -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음. - 모야제과점에서 허드렛일을 함. - 밝고 씩씩한 성격. - (그 밖에 알고 있는 내용을 더 채워 보세요.)
정태	
히로세	
단이의 엄마	

미우라 사장	

교사 Tip 8 다음과 같은 안내를 통해 그리기에 자신 없는 친구들도 도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세요. “인물의 성격이나 특징이 드러나도록 캐릭터를 그려 보세요. 미술 시간이 아니므로 잘 그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교사 Tip 9 전체 학생에게 길잡이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를 나눈 후 그리게 하면 더 좋습니다. “히로세는 어떤 표정일까요?” “단이 엄마는 어떤 성격인 것 같아요?”

교사 Tip 10 또 인물의 성격이나 특징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자신이 느낀 그대로 솔직하게 쓰면 됩니다.

7~8차시	한 학기 한 권 읽기 - 《꿈을 파는 달빛제과점》
읽기 후 활동: 질문에 답하며 내용을 이해하고 나의 생각을 키우기	
학번:	이름:

교사 Tip 11 제시된 질문에 답을 씁니다. 필요한 경우 책을 다시 넘겨 가며 답을 찾도록 합니다. 아래 질문 가운데 필요한 것만 선택하여 사용해도 좋습니다.

1. 곰곰이 생각해 보고 책을 찾아 가면서 질문에 답해 봅시다.

(1) 단이가 모야제과점에서 일하게 된 까닭은 무엇인가요?

(2) 단이 엄마가 시장이 아닌 미우라 사장의 재료상에서 밀가루와 팥을 사서 쓴 이유는 무엇인가요?

(3) 모야제과점의 '제빵 경연대회'에서 우승하면 그 빵의 조리법과 판매권을 모두 제과점에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4) 정태가 임금이 야박해도 재료상에서 배달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5) 단이가 경연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심란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6) 단이가 처음으로 빵을 만들었을 때, 반죽을 어떻게 구웠나요?

(7) 단이가 빵 만들기에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은 어떤 목표가 있었기 때문인가요?

(8) 정태는 제빵 기술을 배워 일본인들과 동등하게 되겠다는 생각으로 모야제과점에 취직했어요. 하지만 단이는 우리를 무시하는 일본인 밑에서 일하고 싶으냐면서 정태에게 자존심도 없느냐고 쏘아붙이지요. 여러분은 정태와 단이, 둘 중에 누구의 생각에 동의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9) 모야제과점이 단이네 팔죽 가게를 빼앗아 그 자리에 분점을 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10) 단이는 부둣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길은 한 방향으로만 나 있지 않고 여러 갈래로 뻗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11) 여러분도 위와 같은 깨달음을 얻은 경험이 있다면 써 봅시다.

교사 Tip 12 학생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으니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예 머랭 쿠키를 만들려다가 실패했지만 대신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디저트를 만들어 맛있게 먹었다.

(12) 단이가 말한 '세상이 뒤집어질 비밀'이란 무엇인가요? 단이가 그 비밀을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라고 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13) 미우라 사장이 경연 모집 공고에 조선인은 안 된다고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14) 정태가 알고 있는 미우라 사장의 약점은 무엇인가요? 정태의 말에 따르면 미우라 사장은 어떤 사람인 것 같을까요?

(15) 정태는 미우라 사장의 “빵에 대한 진심”만큼은 믿는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미우라 사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6) 윌리엄 부인이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찾아와요’라고 이야기했을 때, 단이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말을 들었던 경험이 있나요?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지 써 보세요. 그때의 느낌도 떠올려 함께 적어 보세요.

(17) 단이가 캄파뉴를 ‘희망빵’이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단이는 어떤 빵을 만들고 싶었던 것일까요?

(18) 히로세는 단이와 정태가 경연에 나오는 것을 왜 못마땅하게 여겼을까요?

(19) 단이는 정태가 경연에 나가지 못하게 되자 혼자 경연에 나가는 것이 염치없고 괴로웠어요. 하지만 귀남의 말을 듣고 경연에 나가기로 결심하지요. 여러분이 단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0) 여러분이 정태라면 경연에 나가 예선에 통과한 단이를 보며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은가요?

(21) 단이는 왜 블러드문을 닮은 빵을 만들고 싶었을까요?

교사 Tip 13 윌리엄 선교사는 지금 조선과 단이, 정태를 블러드문에 비유했어요. 그림자에서 벗어나면 다시 본래의 모습을 찾고 더 환하게 빛나게 될 거라면서요. 단이는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블러드문을 닮은 빵을 만들고 싶지 않았을까요?

(22) 미우라 사장이 히로세의 빵이 아니라 단이의 빵에 자신의 표를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23) 단이는 고민 끝에 수습생 자리와 팔죽 가게까지 포기하면서 자신이 만든 빵의 권리를 모야제과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결정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짝꿍 또는 모둠원의 질문에 답해 봅시다.

내가 만든 질문	내가 생각하는 답	문제를 맞힌 친구	스티커

교사 Tip 14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을 3가지씩 만들어 보고 직접 답도 적어 보게 합니다. 이후 짝 활동이나 모둠 활동으로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도록 합니다. 스티커를 미리 배부하고 답을 잘 맞히면 짝의 활동지에 스티커를 붙이게 해 주세요. 개인별이 아니라 팀 별로 획득한 스티커 개수로 보상을 하면 경쟁이 아니라 협력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답을 알려 주는 것은 절대 금지하되, 친구가 답을 맞힐 수 있도록 문제 낸 사람이 최대한 힌트를 주는 것은 허용합니다.

모든 활동이 끝난 후에 모둠원이 낸 질문 가운데 ‘최고의 질문’을 하나씩 뽑습니다. 최고의 질문은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 주는 질문입니다.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미리 공지하면 학생들이 더 좋은 질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9차시	한 학기 한 권 읽기 - 《꿈을 파는 달빛제과점》
읽기 후 활동: 한 뼉 더! 생각 넓히기	
학번:	이름:

교사 Tip 15 주어진 수업 시간과 상황을 고려하여 활동을 선택해서 진행해 주세요.

1. ‘거북빵’은 모야제과점의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빵이지만 맛이 별로라 인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으로’ 사 먹는 사람들이 있지요. 명품을 사는 심리도 이와 비슷할지 모릅니다. 다음 글을 읽고 질문에 답하며 생각을 정리해 봅시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베블런은 부자들이 과시적인 소비를 하는 이유는, 그들이 명품을 구매함으로써 자긍심을 느끼고 동시의 주위 동료나 친구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명품을 구매하고 착용함으로써, 마치 자신이 특별한 존재가 된 것 같은 느낌과 주위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을 얻을 수 있다.

소비자는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이 마치 자신에게 타인과 다른 차별성과 특별함을 준다고 생각한다. 소비자는 제품이 주는 상징으로 인해 소비 욕구를 갖게 되고 그 브랜드가 주는 상징적인 이미지를 얻기 위해 지갑을 열 수밖에 없다.

명품은 고도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마케팅을 통해 부자, 상류층에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도 명품 소비를 지향하게 만들 수 있었다.

- 정윤경 에디터, <아트인사이트> 발췌(www.artinsight.co.kr)

- (1) 윗글에 따르면 사람들이 무리해서라도 명품을 구매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2) 여러분은 명품을 가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YES	언제, 왜 그런 생각이 들었나요?
NO	다른 사람이 명품을 사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 (3) 일반적으로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명품의 경우 가격이 오를수록 과시욕과 모방욕으로 인해 수요가 오히려 증가하기도 하는데, 이를 ‘베블런 효과(Veblen Effect)’라고 부릅니다. 명품 브랜드는 재고가 남더라도 절대 할인을 하지 않고 남은 물량을 모두 폐기 처분한다고 합니다.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여 판매하기도 하지요. 이런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울러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 소비란 어떤 것인지 생각해 써 봅시다.

2. 똑같은 팔이지만 팔죽 속의 팔과 단팥빵 속의 팔은 아주 다르지요. 단이는 팔이 무엇을 만나 어떻게 조리되느냐에 따라 그 맛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도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인간의 본성’에 관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성선설(性善說)’은 맹자가 처음 주장한 것으로 인간의 본성은 본래 짐승의 본성과는 달리 선하다는 주장이에요. 프랑스의 철학자 루소 역시 인간의 본성은 본래 선한 것인데 문명과 사회 제도의 영향을 받아 악해진다고 생각했지요. 반면 순자는 ‘성악설(性惡說)’을 주장했어요. 인간의 본성은 원래부터 악하지만 노력을 통해 후천적으로 선함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또 다른 입장은 ‘성무선악설(性無善惡說)’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지요. 고자(告子)는 사람의 본성은 마치 연못의 물과 같다고 했어요. 연못의 물은 동서로 나뉘지 않고 한데 출렁이고 있다가 동쪽 독을 터놓으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 독을 터놓으면 서쪽으로 흐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본성도 상황이나 주어진 조건에 따라 선한 행위로 나타나기도 하고 악한 행위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1) 단이의 깨달음은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세 가지 입장 가운데 어느 것과 가장 유사한가요?

(2) 여러분은 인간의 본성에 대해 어느 입장을 지지하나요? 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윌리엄 선교사는 단이에게 빵을 만드는 일은 ‘기다림을 배우는 공부’라고 했어요. 다음 시를 감상하고 느낀 점을 써 보세요.

꽃을 보려면
 꽃씨 속에 숨어 있는
 꽃을 보려면
 고요히 눈이 녹기를 기다려라

꽃씨 속에 숨어 있는
 잎을 보려면
 흙의 가슴이 따뜻해지기를 기다려라

꽃씨 속에 숨어 있는
 어머니를 만나려면
 들에 나가 먼저 봄이 되어라

꽃씨 속에 숨어 있는
 꽃을 보려면
 평생 버리지 않았던 칼을 버려라

- 정호승(1999)

4. 히로세는 ‘조선은 우리의 속국이니 우리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라고 했어요. 힘이 약한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할까요? 학벌이 좋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나 어떤 분야에서 능력이 출중한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플라톤은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억울한 일로 재판에 넘겨져 배심원의 투표에 의해 사형이 결정되자 군중 지배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비이성적인 인간이 자유를 누리게 되면 그리스와 아테네의 민주정처럼 극심한 혼란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다. 그가 제시한 이상 사회는 철인이 통치하는 계급사회이다. 철인은 지혜롭고 진리를 깨달은 통치자로서 신과 같이 일체의 흠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플라톤의 주장에 따르면 철인은 선의 이데아와 행복의 원리를 통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치 행위와 결정이 올바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민이 철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헌신할 때 이상적인 국가를 만들 수 있다.

(1) 만약 플라톤이 학급 청소 당번을 정한다면 어떻게 결정하자고 주장할까요?

(2) 여러분은 위 방식에 동의하나요? 동의하거나 그렇지 않은 까닭은 무엇인가요?

(3)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의사 결정 방식은 어떤 것인가요? 그렇게 주장하는 까닭은 무엇인가요?

(4) 모두가 똑같이 한 표씩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좋지 않을 경우도 있을까요? 어떤 경우가 그러할까요?

교사 Tip 16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을 결정할 때는 어떨까요? 누구의 견해를 참고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10차시	한 학기 한 권 읽기 - 《꿈을 파는 달빛제과점》
읽기 후 활동: 나의 꿈 찾기	
학번:	이름:

1. 단이가 생각하는 꿈이란 ‘몸은 바쁘고 힘들어도 마음이 즐거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꿈이란 어떤 것인가요? 한 줄로 써 봅시다.

내가 생각하는 꿈이란, 이다.

교사 Tip 17 ‘내 맘대로 사전’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 써 보도록 합니다. 《아홉 살 마음 사전》(박성우, 창비)의 예를 들어 주세요. ‘기뻐’는 ‘좋아하는 친구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을 때의 마음’, ‘불편해’는 ‘나를 잘 혼내는 삼촌이랑 밥을 같이 먹을 때의 마음’.

2. 여러분은 꿈이 있나요? 있다면 적어 봅시다.

교사 Tip 18 구체적인 진로목표를 정하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외과 의사 이국종 교수처럼 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다’처럼 자신이 존경하는 인물의 훌륭한 점을 떠올려 보도록 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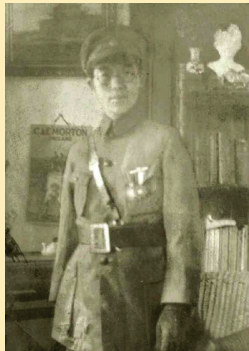
3. 다음 문장 완성 검사를 통해 자신의 특성과 적성을 발견해 봅시다.

교사 Tip 19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떠오르는 그대로 쓰도록 합니다.

- (1) 하루 중 내가 가장 마음 편한 시간은 _____
- (2) 성공이란 _____
- (3) 공부는 _____
- (4)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나는 _____
- (5) 만약 복권에 당첨된다면 나는 _____
- (6)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나는 _____
- (7) 나의 장점은 _____
- (8) 내가 고치고 싶은 점은 _____
- (9) 여러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_____
- (10) 낯선 환경에서 나는 _____
- (11) 누군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_____
- (12) 내가 꿈꾸는 미래는 _____
- (13)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_____
- (14)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면 _____
- (15) 내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_____

4. 단이는 처음에 여자는 제빵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엄마는 “여자는 제빵사가 되면 안 된다는 법이라도 있대? 네가 처음으로 하면 되잖아!”라고 단이의 꿈을 응원합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비행사로 알려진 권기옥은 어린 시절 미국인 아트 스미스의 평양 곡예비행을 구경한 뒤로 비행사가 되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독립운동을 하다 일제 경찰의 검거를 피해 중국으로 망명한 권기옥은 항공학교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여학생을 뽑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학을 거절당했다. 결국 그는 온갖 어려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원난성까지 직접 찾아가 원난성의 성장인 당계요와 담판을 지었다. 당계요는 비행사가 되겠다고 이역만리를 찾아온 조선인의 용기에 탄복하여 전격적으로 입학을 허가했고 권기옥은 마침내 꿈에 그리던 비행사가 될 수 있었다.



(1) 여성이라는 이유로 항공학교의 입학이 거절당했던 권기옥의 경우처럼 여러분의 꿈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나 한계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교사 Tip 20 ‘공무원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경쟁률이 자그마치 백 대 일이야.’ ‘철학과 나와서 뭐 하려고? 취업할 수 있는 전공을 택해야지.’ ‘그 일은 위험해, 성공하기 어려워.’ 등등. 주변에서 흔히 듣는 말들을 떠올리도록 도와주세요.

(2) 그 장애물이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교사 Tip 21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바로잡을 수도 있고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볼 수도 있겠지요. 다양한 방안을 떠올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